



상지대학교 공영형 민주대학 기반 구축 본격화

상지대(총장 정대화)가 '사회협력대학' 비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공영형 민주대학'과 '사회협력대학'을 핵심 비전으로 배움, 일, 돌봄, 섬 등 사회혁신 서비스를 제공, 사람 중심 포용 사회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상지대는 최근 사회협력단을 신설했다. 사회협력단은 생애주기별 사회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발달장애 돌봄센터,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사회혁신 인력양성, 지역경제 혁신, 사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최근 강원도 내 대학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이 업무를 맡을 '인적자원개발(HRD)-직업능력혁신원'도 연내에 신설한다.

지난 9월에는 캠퍼스 안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도 열었다. 이 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양질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인증 멘토링 등 상생과 지원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상지대 발달장애 돌봄센터는 지난 7월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우수모델로 눈길을 끌었다.

상지대가 부지와 시설,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립공원공단, 원주시, 발달장애 학부모 자조 모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상지대 영서관 건물 1층에 전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 재생 혁신인력 양성과 지역 재생 사업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 지역 재생 사업단'도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현장 문제 해결형 리빙 랩'으로 선정됐다. 이 랩은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액비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녹색기술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적·경제적·사회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대화 총장은 "상지대는 캠퍼스 안에 교지, 다양한 학과, 교수 인력, 행정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포용국가 정책을 생활 현장에 집약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새로운 공동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



상상하면



현실이 되지

2020상지대
정 시 모 집

원서접수 2019.12.26(목) - 2019.12.31(화)
입학상담 033-730-0125~7
홈페이지 admission.sangji.ac.kr

상상이 현실이 되는 대학
 상지대학교